

2001년 03월 26일

---

## 해양수산부 장관 이임사(離任辭)

사랑하는 해양수산부 가족 여러분,

이임사를 준비했는데, 막상 여러분 얼굴을 대하니 다 잊어먹고 미안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다른 것보다 그 동안 저와 함께 일하면서 이제 그런 대로 익숙하게 됐는데, 새로 오신 장관께 또다시 여러 업무를 설명하고 새로이 분위기를 맞춰야 하는 부담을 여러분께 드린다고 생각하니 미안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예정했던 것보다 서너 달 앞당겨 불편한 일을 겪는 것이라고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오게 된 것은 해양수산부에 대해 특별히 전문지식이나 애정이 컸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국가 경영에 관해서 좀 더 배워보겠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정말 아주 많은 것을 배우고 참으로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상당히 추상적이었습니다. 공직사회가 우리나라를 움직여 가는 집단이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국정을 얘기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는 정도였는데, 막상 와서 일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믿음직스럽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취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들에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자를 얘기할 때 문제점만을 중심에 놓고 개혁의 대상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점은 작은 부분이고 자세와 역량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장관하고 있는 동안 본의 아니게 저 때문에 섭섭한 느낌을 가졌거나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사심 없이 한다고 한 일이니까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열심히 했고, 제가 벌였던 몇 가지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맘 먹고 일하시면 혼선 없이 일할 수 있을 만큼 나름대로 가닥을 잡아놓은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단계로 접어든 일들을 끝내지 못한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그 일들 또한 잘 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관이 밀어 부치니까 어쩔 수 없이 채택한 정책들은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되겠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논의하고 합의해서 추진했던 일, 여러분도 해야한다고 공감한 일들은 잘 마무리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동안, 여러분은 설사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던 일이라도 일단 서로 이해가 되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사회는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가지면 대단히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조직입니다. 제가 벌여놓은 일들도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얘기들을 되풀이하진 않겠습니다만 꼭 한 가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해양수산부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장관으로 왔을 때에는 상당수의 직원들이 해양수산부가 별로 힘도 못쓰고 목소리도 크지 않은 부처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장관이 자주 바뀌고 힘있는 장관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생각을 씻고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길고 짧음에 차이는 있겠지만 장관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해양수산부의 역량을 키우고 위상을 높이는 일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해양수산부의 주인입니다.

힘있는 장관, 힘있는 장관 하는데 힘이란 것도 따지고 보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일에 정통하고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자료를 제대로 갖추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간다면 그게 바로 힘이고, 그런 힘이 있으면 안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쉽게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이 일만은 성사시키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길게 끝까지 여러분의 역량을 집중하십시오. 그러는 사이 해양수산부는 아주 강하고 역량 있는 부처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미래를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 나가시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후임 장관으로 오시는 정우택 의원님이 신사적이고 합리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고, 저도 그렇게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임명된 어느 부처 장관보다 좋은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

러분과도 호흡을 잘 맞출 것입니다. 모두 심기일전해서 새 장관님과 함께 일을 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인연의 성격이 조금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사 제가 좀 밋상스럽게 보였더라도 좋게 기억해 주시고, 제가 혹시 도움을 청하면 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가끔 제 홈페이지에도 들러 주십시오. 저도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자주 들러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아무리 예정돼 있던 일이라도 또 다른 인연으로 바뀐다는 것이 모두에게 당황스럽고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제가 해양수산부장관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 도울 수 있는 일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부 문제로 다른 장관님과 만나서 얘기할 때 때때로 조심스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 이해하면 부처이기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입장을 강하게 내밀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의 과제 중에서 꼭 해결해야 하는 일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돕는 일이기도 하지만, 제가 장관 하면서 가진 신념을 펼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장관직을 짧게 끝내는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관계부처와 정당, 그리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이 제게 주는 애정의 표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아쉬운 일이 있으면 염치 불구하고 여러분께 전화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한다고 여러분들이 흔들려서 일을 잘못 처리하리라고는 결코 생각지 않습니다.

장관 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의 하나가 제게 들어오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장관이면 모든 것을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 바깥에서 여러 쪽지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민원 들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일들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민원에 대해 엄격한 사람은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고 해도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의심받을 일이 아니면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도 편견은 갖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된 건 없는지 억울하거나 불공평한 것은 없는 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같은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어려움을 한 번에 똑같이 해결해 주진 못하더라도 우연하게 부닥친 것을 계기로 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 일이라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1천명 있다고 칩시다. 1천명을 한꺼번에 구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 한 사람의 문제도 형평을 이유로 뒤로 배제하기보다는 닥치는 대로 한 사람씩이라도 그렇게 구제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들어주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 다 몰려올 게 아니냐는 식의 생각은 마시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정하고 적극적인 봉사자세가 아쉬운 대목이 아직도 가끔 발견됩니다. 가급적이면 해주는 방향으로, 일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도 있고 여론에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어떻게 뭔가 부당하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고, 계속 지평을 넓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연이 계속 되길 바랍니다. 해양수산부라고 하면 행정부처 중에서는 그래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부처가 되도록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2001. 3. 26      海洋水産部長官 盧 武 鉉